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김혜영¹, 박지혜^{2*}

¹동의대학교 치위생과, ²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a College

Hye-Young Kim¹ and Ji-Hye Park^{2*}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Ulsa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 보기위해 수행되었다. 265명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문항을 바르게 인지하는 경우를 100점으로 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도는 76.4(±13.4)점이었다. 과반수 이상에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고, 대다수의 응답자가 에이즈 환자를 꺼렸다. 대부분이 만약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에이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a college. The study population survey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sisted 265 of them. The converted score of knowledge of AIDS among all respondents was 76.4(±13.4) point if 100 point for all statements were correctly answered. More than half of them said they were afraid of getting AIDS. The majority of them had a reluctance toward HIV infected patients. Almost all said that they felt the fear of infection if they had to treat HIV infected people. In conclusion,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more about AIDS.

Key Words : AIDS, Attitudes,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1. 서론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하 에이즈)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의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T세포 특히, 보조 T세포가 파괴되어 면역이 저하됨으로 인해 많은 합병증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에이즈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림프종 및 악성 종양 등이 있으며[1] 특히, 구강영역에서는 구강 칸디다증(oral candidiasis), 구강 모발성 백반증(oral hairy leukoplakia),

구강 궤양(oral ulcers) 및 구강 카포시 육종(oral Kaposi's sarcoma) 등이 있다[2].

HIV는 성관계로 인한 체액,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 사용 및 어머니에게서 자녀로 수직감염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1].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HIV 감염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15-30%가 감염된 채 태어나며, 나머지 10-20%는 수유 과정에서 감염된다[3]. HIV는 타액, 눈물 그리고 소변에서도 발견되지만 이와 같은 체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007년 12월 전 세계 HIV 양성 환자는 3,3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신규감염자는 250만 명, 에이즈로 인한 사

*교신저자 : 박지혜(mahal23@knu.ac.kr)

접수일 10년 02월 23일

수정일 (1차 10년 03월 12일, 2차 10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10년 05월 13일

망자는 21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HIV 양성 환자는 5,323명, 신규감염자는 744명,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980명으로 조사되었다. 신규 감염인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20-40대가 72.3%를 차지하였으며, 감염경로가 확인된 경우는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HIV 신규 감염자율은 2004년도에 14.2%, 2005년도에 11.5%, 2006년도 10.3%로 증가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0.8%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 각자가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에서 콘돔사용률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은 개선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3].

에이즈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Erasmus 등[4]이 남아프리카의 Western Cape 대학교 치과대학생 125명과 치위생과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조사한 결과 94.7%의 학생들이 AIDS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Mulligan 등[5]이 미국의 Pacific AIDS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PAETC)에서 106명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에 에이즈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조사한 결과 교육 후 지식, 태도, 행동이 각각 65%, 86%, 55% 바뀌었다. 또한, Pagliari 등[6]이 브라질의 Sao Paulo 대학교 교수 77명을 대상으로 HIV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62.3%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HIV 양성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지 말라고 충고 하였으나, 단지 32.7%의 교수들만이 HIV 양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똑같이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HIV 양성 환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권 등[7]이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에이즈에 관한 보건교육 방법별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8]는 에이즈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두려움 및 간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교육 후 지식점수가 5.8점 증가하였으며, 송 등[9]이 대구광역시 개인치과의원에 근무하는 215명의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도와 감염방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지식수준은 76.5점이었고, 에이즈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 등[10]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3학년과 4학년의 평균 지식도는 각각 85.5점과 88.0점이었다.

이와 같이 에이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진료실은 매우 다양한 환자와의 접촉과 진료상의 특성으로 여러 경

로를 통한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과종사자 모두가 감염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 치과전문가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고, 치위생학 교육과정 보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8년 11월에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1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중 국가고시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도가 낮은 3학년을 제외한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중 265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합된 자료들의 일반 특성은 평균 연령이 20.6세였으며, 98.9%(262명)가 여학생, 1.1%(3명)가 남학생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60.0%(159명), 2학년이 40.0%(106명)이었다.

2.2 연구방법

설문 문항은 Diclemente 등[11]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10]시켰으며, 설문문항은 에이즈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는 항목 24개 문항과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는 항목 13개 문항으로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묻는 3-5, 7-9번 문항은 병의 전파에 대해, 13-17번 문항은 일상적인 접촉에 대해, 21, 23번 문항은 예방에 대해, 2, 6, 22, 24번 문항은 병의 심각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에이즈에 관련한 태도를 묻는 2번 문항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3, 4번 문항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위협에 대해, 7번 문항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 10번 문항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11번 문항에서는 감염방지에 대해, 12번 문항에서는 치과전문가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13번 문항에서는 진료과정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대해 설문하였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대답하게 하였으며,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정답, 오답, 모름'으로 다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3 통계 분석

수합된 자료들의 분석은 SPSS(14.0K)를 이용하여 학

년에 따른 정답률 및 태도의 차이는 χ^2 -검정을, 학년 간 평균 지식도의 차이는 t-tes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3. 결과

3.1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항목별 응답율

에이즈의 원인에 대해 묻는 문항(1, 18-20)에 있어서는 78.1%의 응답자가 ‘에이즈가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HIV가 원인 바이러스로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는 것은 단지 33.2%의 응답자만이 알고 있었다.

에이즈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2, 6, 10, 11, 22, 24)에 대해서는 89.4%의 응답자가 ‘에이즈는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에이즈는 초기에 치료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은 과반수가 조금 넘는 57.0%의 응답자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병의 전파에 대한 질문 중 에이즈 고위험군에 관한 문항(3, 4)인 ‘모든 동성연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누구라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78.1%와 91.7%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으며, 모체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문항(5)인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92.8%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수평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문항(7-9, 12-17)에 있어서는 ‘에이즈가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 없다’는 것은 절반이 안 되는 46.8%의 응답자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오염된 주사바늘 사용, 수혈, 체액을 통해서 에이즈의 전파가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72.1-98.9%의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한편, 에이즈 예방에 관한 문항(21, 23)인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73.6%의 응답자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에이즈 예방을 위해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40.0%의 응답자만이 바르게 인지하고 있었다[표1].

[표 1]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항목별 응답율(%) (n=265)

	정답	오답	모름
원인			
1.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78.1	14.3	7.5
18. 스트레스는 에이즈를 발병시킨다.	84.2	4.5	11.3
19. 에이즈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33.2	37.4	29.4
20. 에이즈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57.4	27.2	15.5
심각성			
2. 에이즈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	69.1	22.3	8.7
6.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	86.0	8.7	5.3
10. 에이즈는 생명을 위협한다.	89.4	9.1	1.5
11.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에이즈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	74.3	10.9	14.7
22. 에이즈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57.0	24.2	18.9
24. 에이즈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	77.0	16.2	6.8
병의 전파			
3. 모든 동성연애자는 에이즈에 걸린다.	78.1	18.5	3.4
4. 누구라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91.7	6.0	2.3
5.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2.8	3.0	4.2
7.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89.4	5.7	4.9
8.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98.9	0.0	1.1
9.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98.1	0.8	1.1
12. 에이즈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 있다.	46.8	37.7	15.5
13. 에이즈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80.4	11.7	7.9
14.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의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90.2	5.3	4.5
15.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79.3	14.7	6.0
16. 에이즈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72.1	16.2	11.7
17.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95.8	1.1	3.0
예방			
21.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73.6	8.7	17.7
23. 새로운 백신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	40.0	25.3	34.7

3.2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항목별 정답율의 학년별 차이

에이즈의 원인에 대해 묻는 문항(1, 18-20) 중 ‘에이즈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20번 문항에서만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63.5%와 48.1%로 정답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3), 에이즈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2, 6, 10, 11, 22, 24) 중 ‘에이즈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10번 문항에서만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85.5%와 95.3%로 정답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1). 한편, 병의 전파에 대한 질문 중 에이즈 고위험군에 관한 3번, 4번 문항과, 모체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5번 문항, 수평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7-9번, 12-17번 문항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에이즈 예방에 관한 문항(21, 23) 중 ‘새로운 백신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개발되지 않았다’는 23번 문항에서만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34.0%와 49.1%로 정답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4)[표2].

3.3 학년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평균 지식도의 차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도는 1학년이 평균 76.0점, 2학년이 평균 76.9점으로,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학년에 따른 에이즈에 대한 평균 지식도의 차이

학년	평균±표준편차	p-값
1학년(N=159)	76.0±13.01	0.581
2학년(N=106)	76.9±13.98	

3.4 에이즈에 대한 태도의 항목별 백분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1%)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었고, 에이즈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지되는 위협의 정도를 묻는 문항인 ‘나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에서는 78.9% 학생들이 자신은 에이즈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에이즈에 대한 지식의 항목별 정답율의 학년별 차이(%) (n=265)

	1학년	2학년	p-값
원인			
1.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	74.2	84.0	0.060
18. 스트레스는 에이즈를 발생시킨다.	84.9	83.0	0.680
19. 에이즈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	32.1	34.9	0.632
20. 에이즈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63.5	48.1	0.013
심각성			
2. 에이즈는 신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의학적 상황이다.	69.2	68.9	0.957
6.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	86.2	85.8	0.942
10. 에이즈는 생명을 위협한다*.	85.5	95.3	0.011
11.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에이즈로 인해 다른 많은 병에 걸린다.	73.0	76.4	0.528
22. 에이즈는 초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55.3	59.4	0.510
24. 에이즈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	75.5	79.2	0.475
병의 전파			
3. 모든 동성연애자는 에이즈에 걸린다.	78.6	77.4	0.808
4. 누구라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91.2	92.5	0.716
5.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0.6	96.2	0.080
7.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90.6	87.7	0.463
8.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98.7	99.1	1.000
9.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98.1	98.1	1.000
12. 에이즈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 있다.	42.8	52.8	0.108
13. 에이즈는 가벼운 입맞춤으로 감염될 수 있다.	83.0	76.4	0.185
14.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의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90.6	89.6	0.800
15.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물건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80.5	77.4	0.536
16. 에이즈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73.0	70.8	0.696
17.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악수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95.6	96.2	1.000
예방			
21.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77.4	67.9	0.088
23. 새로운 백신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	34.0	49.1	0.014

*p<0.05

[표 4] 에이즈에 대한 태도의 항목별 백분율(%) (n=265)

	예	아니오	모름
1. 에이즈는 매스컴이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크지 않다.	4.9	88.3	6.8
2. 나는 에이즈에 걸릴까봐 두렵다.	58.1	36.2	5.7
3. 나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78.9	7.2	14.0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낮다.	69.8	9.8	20.4
5. 나는 에이즈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	77.0	4.9	18.1
6.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았습니까?	89.1	6.0	4.5
7. 나는 에이즈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23.0	66.0	10.9
8. 학생들이 감염방지시간에 에이즈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94.7	2.3	3.0
9. 에이즈 혈청양성반응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94.3	1.9	3.8
10. 개인치과의원에서 에이즈 혈청양성반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67.5	20.4	12.1
11. 치과병원에서는 간염 바이러스보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	55.8	21.9	22.3
12. 치과의사는 에이즈 혈청양성반응 환자도 똑같이 치료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42.3	31.3	26.4
13. 내가 만약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90.9	3.4	5.7

‘나는 에이즈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는 문항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볼 수 있는데 77.0%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에이즈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문항은 앞으로의 에이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것으로 66.0%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에이즈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이즈 환자를 기꺼이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에이즈 혈청양성반응 환자들의 치과 치료는 특별한 격리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94.3%가 전문시설로 위탁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67.5%의 응답자가 ‘치과에서 에이즈 혈청양성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90.9%의 응답자가 ‘내가 만약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감염방지에 대해 묻고 있는 ‘치과에서는 간염 바이러스보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방지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에서는 응답자들의 55.8%가 찬성하였다.[표4].

4. 고찰

2008년 11월에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1개 대학 치위생과 1학년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에이즈의 원인에 대해 묻는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와 ‘HIV가 원인 바이러스로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에 대한 정답율은 각각 78.1%와 33.2%로 나타나, 송 등[9]이 대구광역시 내 치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정답율 66.7%와 22.1%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였으나, 손 등[10]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95.5%와 90.6%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치였다. 또한 에이즈 고위험군에 관해 묻는 ‘모든 동성연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와 ‘누구라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에 대한 정답율은 각각 78.1%와 91.7%로 나타나 송 등[9]이 보고한 91.2%와 80.4%와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손 등[10]이 보고한 98.2%와 92.1%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치위생 교육과정보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에이즈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모체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질문은 92.8%의 정답율을 보였으며, Diclemente 등[1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답율을 85.7%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수평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에이즈가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 없다’는 것은 46.8%의 정답율을 보여, Marcelin 등[12]이 300명의 아이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답율 43.3%보다 높은 수치로, 이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오염된 주사바늘 사용, 수혈, 체액을 통해서 에이즈의 전파가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72.1-98.9%의 정답율을 보였으며, Nasir 등[13]이 수단 카르툼 지역의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96.1%의 응답자가, 오염된 날카로운 기구 사용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93.9%의 응답자가, 약수로 인해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85.6%의 응답자가 그리고 음식 섭취로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87.8%의 응답자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평균 지식도는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평균 76.0점과 76.9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년에 관계없이 치위생 교육과정 전반에서 에이즈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 지식도는 송 등[9]이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76.5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손 등[10]이 치과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지식도 85.5점과 88.0점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치위생학보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에이즈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Mulligan 등[5]은 에이즈 교육 전에는 치과전문가들의 평균 지식도가 82.0점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후에는 85.1점으로 나타나 3.1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1%)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이는 송 등[9]의 연구에서는 나타난 35.6%보다도 높은 수치로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나는 에이즈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는 질문에는 77.0%의 응답율을 보여 손 등[10]이 보고한 71.9%와 유사한 결과로 이는 미래의 치과전문인들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Pagliari 등[6]이 브라질의 Sao Paulo 대학교 교수 77명을 대상으로 HIV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단지 32.7%의 교수들만이 HIV양성 환자를 다른 환자와 똑같이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치과전문가들도 HIV양성 환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에이즈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질문에 66.0%가 앞으로의 에이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Nasir 등[12]이 보고한 75.9%보다는 낮은 수치로, 이는 국가 간의 에이즈 환자수로 인한 문제의식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내가 만약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는 질문에 90.9%의 응답율을 보여주었으며, Anderson 등[14]이 1학년과 4학년 치과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건강관리전문가로서 에이즈 환자를 거부할 수 있어야한다’라는 질문에 1학년과 4학년 각각 24.0%와 48.3%의 동의율을 보였

다. 또한 Pagliari 등[6]의 연구에서는 38.9%의 전문가만이 HIV양성 환자에 있어서 어떤 치료든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8.1%는 침습적이지 않은(non-invasive) 치료만, 13.0%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에이즈 환자에 있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사하였다.

치위생 교과과정 중 에이즈와 감염방지에 관한 교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뿐 자세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과과정 분석[15-18]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이 에이즈 교육에 할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치위생과 1-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하나로 가치를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학별 그리고 학년별 차이에 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Ritter AV, Patton L, "HIV/AIDS and oral health", J Esthet Restor Dent, Vol.19, No.5, pp. 297-298, September, 2007.
- [2] Ranganathan K, Hemalatha R, "Oral lessons in HIV inf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 overview", Adv Dent Res, Vol.19, No.1, pp. 63-68, April, 2006.
- [3] www.aidsinfo.or.kr 한국에이즈정보센터홈페이지.
- [4] Erasmus S, Luiters S, Brijlal P, "Oral hygiene and dental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in managing HIV/AIDS patients", Int J Dental Hygiene, Vol.3, No.4, pp. 213-217, November, 2005.
- [5] Mulligan R, Seirawan H, Galligan J, Lemme S, "The effect of an HIV/AIDS educational program o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dental professionals", J Dent Educ, Vol.70, No.8, pp. 857-868, August, 2006.
- [6] Pagliari AV, Garbin CAS, Garbin AJI, "HIV attitudes and practices among professors in a Brazilian dental school", J Dent Educ, Vol.68, No.12, pp. 1278-1285, December, 2004.
- [7] 권관우, 이경무, 김훈수, 김정순, 정정균, "성과 에이즈에 관한 보건교육 방법별 효과 측정",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17, No.2, pp. 111-124, 6월, 2000.

- [8] 이종경, “에이즈 교육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두려움 및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5-14, 3월, 2002.
- [9] 송근배, 송경희, 이형숙, “대구광역시 개원가 치위생사들의 감염방지 실태 및 에이즈에 관한 지식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4권, 제3호, pp. 217-227, 9월, 2000.
- [10] 손해옥, 이종영, 김혜영, 정성화, 송근배,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5권, 제3호, pp. 287-298, 9월, 2001.
- [11] DiClemente RJ, Zorn J, Temoshok L, “Adolescents and AIDS: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 J Public Health, Vol.76, No.12, pp. 1443-1445, December, 1986.
- [12] Marcelin LH, McCoy HV, DiClemente RJ, "HIV/AIDS knowledge and beliefs among Haitian adolescents in Miami-Dade county, Florida", J HIV AIDS Prev Child Youth, Vol.7, No.1, pp. 121-138, June, 2006.
- [13] Nasir EF, Astrom AN, David J, Ali RW, “HIV and AIDS related knowledge, sources of information, and reported need for further education among dental students in Sudan- a cross 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Vol.8, No.1, pp. 286-294, August. 2008.
- [14] Anderson DG, Call RL, Vojir CP, “Differences in HIV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first- and fourth- year dental students”, J Dent Edu, Vol.58, No.8, pp. 668-672, August, 1994.
- [15] 노미진, “경영학과 비영리부문의 교과과정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0권, 제10호, pp. 2846-2856, 10월, 2009.
- [16] 신연호, “2년제 대학 애완동물 관련과 교육과정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9권, 제1호, pp. 236-245, 1월, 2008.
- [17] 이태용, 김광환, “개인 의료기관에 내원한 고혈압 및 당뇨병환자에게 실시한 건강교육이 치료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0권, 제2호, pp. 425-431, 2월, 2009.
- [18] 오상영, “전자상거래 e-Biz Model과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대학의 EC 교육과정”,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9권, 제6호, pp. 1811-1817, 6월, 2008.

김혜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초예방치의학, 임상예방치의학, 공중구강보건학, 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박지혜(Ji-Hye Park)

[정회원]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 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기초예방치의학, 임상예방치의학, 치과재료학, 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